
第113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交通委員會會議錄 第5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9年6月2日(水) 午後4時

場所 交通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交通放送本部懸案業務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交通放送本部懸案業務報告의件 ... 1面

(16時 17分 開議)

○委員長 朴謙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交通放送本部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업무수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交通放送本部的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交通放送本部懸案業務報告의件

○委員長 朴謙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交通放送本部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交通放送本部長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안녕하십니까?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朴謙洙 委員長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 통신원 발대식에 참석하여 행사를 진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방송은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전달과 지속적인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통해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춘·하계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해서 방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시민들의 보람찬 삶과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송을 편성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교통방송의 주요업무는 6월 11일 개국 9주년 행사와 특집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금년 하반기 방송계획을 재점검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幹部紹介:總務部長 柳在興, 編成局長 유남수, 放送審議室長 朴輔隆)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 9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交通放送本部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저희 交通放送本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謙洙;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답변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林東奎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서는 질의를 받는 동안 좌석에서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東奎 委員; 林東奎委員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99년도 협찬수입 목표를 37억 2,000만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5월말 현재로 91.7%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금년말까지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 한 50억원 이상 되지 않는가, 지금까지 한 실적을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획보다 초과해서 들어오는 협찬금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먼저 집행을 하실 것인지 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통방송에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야간근무자 급량지원 문제를 의회에서 아마 물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2000년 예산에서 반영을 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는 야간근무자의 급량지원 문제는 어떻게 운용을 해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부분들이 계약직이 계시는데 계약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謙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平城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平城 委員; 金平城委員입니다.

먼저 시민과 더욱 친숙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시정과 시민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市長, 副市長 그리고 局長님들하고 이렇게 일선 구청장까지 구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진전되게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의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단까지 市議會 간부도 어떤 프로그램을 부여해서 의회와 시, 구청같이 가도록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林東奎委員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交通放送本部의 전체예산액이 108억원인데 그 중에서 37억원을 협찬을 받았는데 그 목표액을 추가로 41억원으로 증가해서 잡았고 전체예산의 34.4%라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실적이 34억원으로써 91.7%의 목표 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더욱 증가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당초목표가 잘못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서 섭의를 할 수 있는 실무팀에 대한 동기부여 소위 motivation을 좀더 활용하면 그러니까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좀더 한다면 더욱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본 부장의 견해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謙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朱世晩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世晩 委員; 朱世晩委員입니다.

교통방송목적에 알맞은 교통기상환경 중심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가는 것을 보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홍보 방송이나 캠페인 방송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좀더 시정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통방송 현장분야를 보면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윤중로 벚꽃놀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하남 환경박람회 등 현장방문도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덧붙여 우리 서울의 중소기업 살리기에 교통방송이 동참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IMF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천명해 왔듯이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은 정부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통현장 방문 등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을 소개하거나 제품을 소개하거나 또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야기를 방송한다면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 기업 활성화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구인구직정보 방송을 결들였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따로 시간대를 만들어서 한다면 시민들의 청취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협찬방송수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교통관련 업체들의 협찬유치를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기업들의 탐방현장방문이 어우러진다면 협찬수입 제고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謙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崔鍾午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午 委員; 崔鍾午委員입니다.

협찬방송수입과 관련해서 전직원 광고요원화 6건에 1억 5,900만원을 유치했다고 했습니다. 직원의 광고유치에 대해 직원에게 어떠한 merit를 주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이 보고를 받으면서 交通放送本部 직원뿐만 아니라 전직원을 광고요원화한다면 협찬유치가 더 많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방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5월 말경에 우리 朴謙洙 交通委員會 委員長

님과 제가 같이 가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 녹음방송했는데 그때 많이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요사이 방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謙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敬愛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愛 委員; 李敬愛委員입니다.

우선 교통방송의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청자위원회에 여성 두 분을 보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로 모셨는데 보다 이 분들에 대한 활용을 구체화하셔서 더 좋은 방송 만들기에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성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자료에 보니까 한 편당 3분짜리 홍보를 하는데 어떤 분은 오셔서 방송하시는데 수고료로 예를 들면, 3만원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 10만원을 드리는 굉장히 많은 격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회 저명인사로 초청돼 오시기는 하지만 편성의 수고료로 나가는 격차가 너무 심한 것은 한편에서 보면 어떤 특혜의혹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되어짐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謙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금 준비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47分 會議中止)

(17時 24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謙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交通放送本部長께서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점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위원님들의 질의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林東奎委員님께서 협찬수입이 37억 2,000만원인데 현재 약 50여억이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두 번째는 야간근무자 급량비 반영계획, 세 번째는 방송계약직 선발계약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협찬광고 수입은 저희가 지금 아까 金平城委員님과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41억이 되고 50억이 되는 것은 현재 흐름으로 보서는 37억 2,000만원은 우선 쉽게 돌파할 수 있

겠는데 10%를 초과했을 때 41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개략적인 것을 살펴보면, 하반기는 또 원래 계약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고 모든 계약서라 하는 것은 전반기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3월, 6월 이 때 연간계획을 다 마쳐버리기 때문에 아까 도표에도 나왔습니다만 30%, 15%, 5%로 이렇게 하향으로 똑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같이 41억이 되고 51억이 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협찬광고 수입은 만일에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서울특별시 시세입 원칙에 따라서 전액 시수입으로 조치되며 초과집행 광고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交通放送本部長이 이것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송신소 야간 근무자 급량비는 현재 야근자에 대해서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한 1만원 정도로 올려서 월액 급량비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참고로 KBS, MBC, 지방방송이라든가 중앙의 방송들은 야간 기술자들에게 또 2만원 내지 3만원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의 계약선발기준, 계약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직원 선발은 신규채용과 경력자 채용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은 최근에 신규채용, 신입사원 채용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할 경우는 신규채용자나 경력자는 똑같이 신문광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채용에 관한 모든 절차는 시 인사행정과, 그 다음에 조직제도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승인요청

을 올리면 거기서 시에서 승인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신문광고도 하고 채용절차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기존 교통방송 대부분의 직원이 방송계약직으로 익히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재계약은 금년말로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끝납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 내부에 1년에 두 번 하는 고과평가에 의해서 내부에 평가위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해서 시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平城委員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정홍보에 있어서 행정부서 홍보는 활발한데 비해서 의회 활동의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시의회 상임위원장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8회를 방송했고 또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찬방송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41억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37억 2,000만원의 10%가 초과 달성되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를 잘못 잡은 것 아닌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0%가 되었을 때 41억이 됩니다.

실무팀들을 위한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동기부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조직이기 때문에 몇 번 시에 건의를 해 봐도 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朱世晚委員님께서 서울의 중소기업 살리기에 대한 방송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인.구직에 대한 방송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통방송의 큰 역점사항이 첫째는 원활한 교통소통이고 두 번째는 어떡하든지 경제난을 극복하도록 하자, 세 번째는 국민통합이라는 큰 기본정신을 가지고 저희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난 극복, 그래서 모든 편성에 기본기본마다 중소기업관계, 직장구하기 방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특징에도 있었습시다만, 서울의 중소기업 살리기에 대한 방송은 현재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 상설전시관에서 현장방송을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인·구직에 대한 방송은 현재 프로그램에 편성 방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후 2시, 3시에 방송하는 시민중계실에서 취업상담을 하고 있고 여기서 취업상담은 토요일에, 창업상담은 목요일에 방송중입니다. 또한 오후 5시 15분부터 방송되는 정보스튜디오에서도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시다만, 이번 개국 9주년 특집으로 6월 11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취업 창업박람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崔鍾午委員님께서 협찬방송 전 직원 광고요원화에 따라서 어떤 메리트를 주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메리트를 주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저희 교통방송의 정체성과 위상에 따라서는 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조직에서는 메리트, 리베이트라든지 그런 제도를 채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까지 확대하는 것도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李敬愛委員님께서 시청자위원 중에서 여성 전체 세 분 된 것 말씀하시고 전문가 활용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자위원은 전문가 중심으로 그렇게 편성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계, 환경분야, 교통계, 언론방송계, 소비자, 법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시청자위원회 회의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 메모를 해서 방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성에서 제작비가 시간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3만원, 어떤 사람은 10만원, 격차가 심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중파방송에서 제작비 규정이라는 어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른 것인데 특히 교통방송은 KBS, MBC 공영방송 기준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급이 특,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라 하면 주로 공중파방송이 다 그렇습니다만 대학교수, 국회의원, 국무위원, 원로급 지도자, 그리고 이제 가나 다라, 이렇게 해서 사회지도층 각 부분 전문가, 일반서민, 제일 밑이 대학생 및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한국에 공중파방송 내지 공영방송에서는 제작비 규정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朴謙洙;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林東奎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東奎 委員; 본부장님 수고하시는데 앞으시지요. 林東奎 委員입니다.

본위원이 협찬금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10%를 더 받고 20%를 더 받고 이것이 아니라 목표설정이 37억 2,000만원을 세워서 5월 31일 현재 91.7%가 달성이 되어서 34억 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1년 열 두달을 볼 때, 기간적으로 볼 때 5개월만에 91.7%가 달성이 되었는데 이 금액을 초과해서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추가 협찬금이 얼마가 들어 오든 전액 시 수입으로 입금을 잡기 때문에 交通放送本部의 금년도 예산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제가 市로 다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도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목표설정을 37억 2,000만원을 해서 10%를 했을 때는 4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林東奎 委員;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목표는 10%, 20%가 아니라 단 거기서 100만원을 걷든, 10억을 걷든, 20억을 걷든 액수는 나중 일이고요, 지금 거기에 추가되어 들어오는 금액은 모두가 전액 시 수입으로 입금이 된다고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차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추가로 더 들어오는 금액 모두가 시 수입으로 다 입금을 잡고 교통방송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에 관해

서 서울시와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열심히 밑에서 간부가 뛰든 직원이 뛰어가지고 그만큼 협찬금이 더 들어왔으면 여하튼 交通放送本部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것을 전부 시 수입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요.

야근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5,000원씩을 지급하는데 2000년 예산에서는 1만원씩 지급을 한다라고 급량비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방송은 2·3만원씩 다 지급을 한하는데 교통방송만 1만원 지급해서는 사기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交通放送本部長께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방송직이 다 계약직으로 해서 고과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방송이든 회사든 문제는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능한 사람을 능력 있는 전문가를 교통방송에 모셔오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분을 어떻게 모셔오느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이것을 현재 있는 분들을 고과평가위원회에서 해서 재계약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 능력 있고 전문가를 영입을 해야 교통방송이 다른 방송보다 앞서가는 방송 내지는 같이 대등한 방송이 될텐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영입을 하겠느냐 이런 것이고, 다른 데보다 월등히 대우가 나쁘다면 어떤 전문가가 交通放送本部에 오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것을 본부장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朴謙洙;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협찬금 처리에서 목표설정의 요점은 같습니다. 저희 답변은 시민이 낸 세금을 줄여주자, 협찬금이 들어오면 시 금고로 입금되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아니 꼭 그 목적 그것보다도 34.4%를 점유하는 저희 협찬금인데, 첫째는 시민이 낸 세금을 줄여주자, 두 번째는 결국 시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과거의 IMF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그때는 협찬금이 대단했습니다. 그게 저희 기본정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근자에 대한 2000년도 1만원 지급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차를 나중에 통과하려면 많은 절차를 겪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5,000원인데 1만원으로 한번 실무자들하고 상의해서 잡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KBS, MBC하고 다르다 그런 말씀은 저희들의 간부나 모든 직원들의 연봉책정을 보면 KBS, MBC, SBS 공중방송의 60% 내지 80%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제 특근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 그런 부분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KBS가 3만원이고 MBC가 1만원이다, 그런 단순비교를 하기는 저희 공무원조직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점핵심하고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요점은 유능한 인물 전문가를 영입하는 그런 뜻이었다, 그런 말씀인데 저는 일반적인 것을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영입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도 모든 것을

저희 교통방송 종사자 또는 제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와 일단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조직제도담당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에서도 우수한 인물을 영입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현재 교통방송의 인원책정이 12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18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TO가 남을 경우는 시에서는 철저히 TO제를 강조하고 있으니깐요, 저희 계획은 현원은 계속 줄여가지고 가능하면 참신한 신입사원을 신문광고 광고해서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는 현재 계약직이 가나다라로 되어 있는데 가급에서 퇴직할 경우는 이것도 가에 몇 명, 나에 몇 명, 정원책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에서 물러난 사람이 있으면 임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유능한 인물을 영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입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봉이라든지 모든 대우가 공중과 방송보다는 많이 약하지만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도록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謙洙; 말씀하십시오.

○林東奎 委員;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市도 그렇고 本部長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유능한 능력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데는 뜻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우를 어느 정도 해 주어야 여기에 오려고 하는지, 대우가 KBS의 60%밖에 안 되니까 과연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오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내년도의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소신을 가지고 市長님한테 강하게 말씀도 하고, 간부들 설득도 해서 그렇게 유능한 분을 모셔올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지문제 이런 쪽에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개국 편성국과 교통정보국이 있고 시민실이 있습니다. 2개국과 1실 각부가 있는데 부장급 이상 간부들은 대단히 유능한 기존 공중파방송에서 다 방송을 체험했던 유능한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市長님을 뵙고 우리가 TO가 빌 경우에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朴謙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交通放送本部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춘.하계 프로그램 개편과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 충원 등으로 새로운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본부장을 중심으로 성숙한 교통문화 창달 그리고 교통소통에 필요한 교통정보의 신속한 전달 등 교통방송의 특수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交通放送本部長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47分 散會)

○出席委員

朴謙洙 尹汝亨 趙成大 金聖泰

金玉源 金平城 李敬愛 李載震

朱世晚 崔鍾午 林東奎

○專門委員

金泰鎬

○出席公務員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